

Food processing machinery market in Cambodia

캄보디아 식품가공기계 시장

Writer

이치호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Contents

- I. 식품가공기계 일반 시장동향
- II. 수입 규모 및 통계
- III. 유통구조 및 전시회 정보
- IV.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 V. 결론

※ KOTRA 글로벌원도우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I. 식품가공기계 일반 시장동향

농식품 분야에서 기계는 대부분 1차 상품을 생산하는 캄보디아의 특성상 주력 농산물인 쌀, 옥수수, 카사바, 과일 등 관련 농기계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RPC 기계류의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 현재는 베트남과 중국이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식가공 분야에서는 맥주 및 음료수, 생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는 영세하거나 업체 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 제품의 다수는 수입에 의존 중이나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풍부한 1차 농산물을 원료로 해 자체 생산한 음료 등 가공식품 등을 만들기 위해 많은 현지 중소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 부족 및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현지 기업인 Lyly food사는 일본의 Kameda Seika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합작해 생산된 과자를 무역특혜를 적용 받아 해외로 수출 중이다. 또 다른 현지 기업인 One more manufacturing사는 늘어나는 라면 수요에 부응해 일본 제조시설을 도입, 캄보디아 자체 제조 라면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내수 진작 및 유통채널 증가, 프랜차이즈 요식업 확대 등으로 관련 제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 및 SME 현대화와 관련해 냉장·냉동시설, 오븐 등 조리시설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커피산업과 관련한 커피 머신, 정수기, 박스, 비닐 등 제품 포장지의 원부자재 및 기계, 완제품에 관한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표 1] 최근 5년간 누적 수입액 상위 국가(HS code 8422 기준) (단위 : 1,000 US\$)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누계
독일	285	15,400	15,084	3,603	12,858	47,230
중국	1,687	3,622	6,128	5,116	5,287	21,840
베트남	84	80	973	1,790	3,469	6,396
이탈리아	5,925	6,241	6,259	14,253	2,580	35,258
태국	447	219	1,972	630	1,427	4,695
한국	127	85	98	64	949	1,323
총계	8,555	25,647	30,514	25,456	26,570	116,742

[자료 : ITC Trade map]

[표 2] 최근 5년간 누적 수입액 상위 국가(HS code 8422.30 기준) (단위 : 1,000 US\$)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누계
독일	0	14,860	14,060	3,072	9,059	41,051
중국	1,074	1,347	3,397	2,376	2,046	10,240
베트남	38	0	425	1,583	1,777	3,823
태국	201	85	789	222	800	2,097
한국	67	77	78	26	372	620
이탈리아	4,916	4,978	3,284	5,642	247	19,067
총계	6,296	21,347	22,033	12,921	14,301	76,898

[자료 : ITC Trade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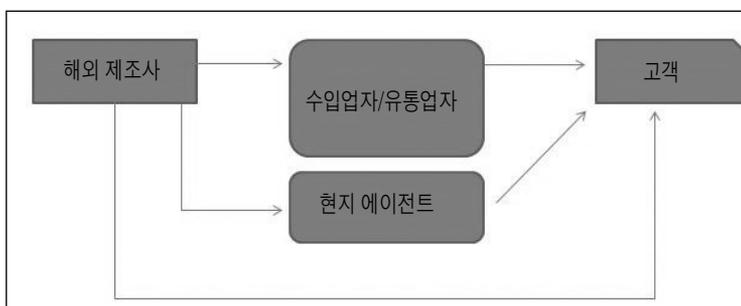
II. 수입 규모 및 통계

2018년 기준 HS코드 8422 기계류는 2,657만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2015년에 급격히 수입량이 증가한 뒤 2017년부터 다소 줄어든 후 안정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8422.30 기계류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일, 중국, 베트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7년까지도 성장을 유지했으나 2018년부터 수입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총수입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2018년 급상승했다. 2017년도까지는 한국으로부터 총수입량이 10만 달러 이하였으나 2018년에 전년대비 약 14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 1] 캄보디아 식품가공기계의 유통구조



III. 유통구조 및 전시회 정보

캄보디아에서는 기계 설비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소형 설비의 경우 판매량이 꾸준한 제품은 수입자가 자신의

[표 3] 캄보디아 식품가공기계 관련 전시회

전시회명	CAMFOOD & HOTEL 2020	
전시품목	 식품, 음료, 커피, HORECA 산업	
웹사이트	http://www.camfoodhotel.com/	
개최주기	2년	
개최시기	2020년 10월 22~24일	
개최장소	Diamond Island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re (DIECC), Koh Pich, Phnom Penh, Cambodia	

[표 4] 캄보디아 식품가공기계 관련 주요 기업들

주요 업체 기본 정보	사진
<p>Yeungshi group</p> <p>- 중국계 현지 기업으로 소형 농업기계, 가공기계, 주방기계 등을 함께 수입 판매</p> <p>- 홈페이지 : http://www.yeungshigroup.com/</p>	
<p>Rieckermann(Cambodia) co.,ltd</p> <p>- 국제적 기업으로 식품 가공을 포함한 산업기계의 공급과 관리 및 솔루션을 제공</p> <p>- 홈페이지 : https://rieckermann.com/en/contact/local-cambodia-phnom-penh/</p>	
<p>KSLM Investment Co., Ltd.</p> <p>- 현지 업체로 제빵 및 주방기기, 냉장 냉동, 식품가공 등 HORECA 분야 기기를 공급</p> <p>- 홈페이지 : http://www.kslm-investment.com</p>	

매장에서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주문을 받아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공식품 제조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대형 설비의 경우

에는 주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외 제조업체가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IV.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식품가공이나 포장기계만을 전문으로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없고, 대부분 여러 산업 분야의 제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건조기 등 쌀 1차 가공처럼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군이나 커피 등 종목별로 구분이 가능한 분야의 경우, 연관 기계 해외 브랜드들을 독점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존재한다.

관광 경기 및 내수 경기의 호조에 따라 호텔, 레스토랑, 커피 산업(HORECA)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HORECA분야 전시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해외 관련 기기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표 3]에서 소개한 업체 외에 Charles wembley (Cambodia) PTE. Ltd, Ultimate M&E equipment 등이 있다. Charles wembley (Cambodia) PTE.

Ltd는 싱가포르 기업으로 아시아 곳곳에 진출해 있다. 원래 의료기와 식품기기를 전문으로 하며, 캄보디아에서는 식품 관련 주방기기가 주 사업 분야이다. Ultimate M&E equipment는 비교적 신생 현지 기업으로, HORECA분야 기기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기본 세율(HS code 8422.30)은 수입관세 15%(VAT 10% 별도)이며, 민감품목으로서 한-아세안 FTA 미 적용(수입관세 15% 동일) 제품에 해당한다.

V. 결론

국내외 프랜차이즈의 캄보디아 진출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현지 요식업체들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조리시설이나 포장기에 관한 수요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지국가의 필요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캄보디아 중소농식품 제조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을 통한 제품 소개 및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식품산업의 경우,

단순기계뿐 아니라 기술과 식품 관련 노하우 및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현지 농식품의 품질을 높여주고 수출 조건을 맞추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농식품 가공산업에 관한 투자 유치를 갈구하고 있으며, 최근 SME 지원을 위한 SME은행에 1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추, 캐슈넛 등 특산품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농식품의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들의 기준이나 기호에 맞추기 위한 검역, 포장 시설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분류-세척-처리 및 가공, 포장 시설에 관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업체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망고 등 캄보디아의 열대과일 수입 및 투자에 대한 중국 및 베트남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